



### 해경스님의 경전읽기

법화경 ⑤ 제바달다품 제12

#### 악인성불

이 '제바달다품'은 쿠마라지바(鳩摩羅什)의 <묘법연화경>에서는 '제12장'으로 독립되어 있으나 <장법화경>이나 <산스크리트본(梵本)>에서는 '제11장 견보탑품' 속에 포함되어 있어 여기서부터는 <묘법연화경>의 품수(品數)와 <법본>이나 <장법화경>의 품수가 서로 일치하지 않음에 유의해야 한다.

이 '제바달다품'은 석존의 전생이야기에서 시작된다. 이 품은 '현재의 석존이 아득히 먼 옛날에 어떻게 하여 <법화경>을 얻었는가'라고 하는 석존의 과거 수행이야기이다. 석존께서는 이 법화에 모인 보살과 천신 및 사람들, 비구·비구니의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헤아릴 수 없을 만큼의 옛날 오랫동안에 걸쳐 <법화경>을 계속하여 구해왔다. 큰 나라의 국왕으로 있을 때에 원(願)을 세워 최고의 깨달음을 구

(善友)이며 그의 덕으로 나는 깨달음을 완성하고 부처로서의 온갖 덕성을 갖추게 된 것이다."

이렇게 설하신 다음 석존께서는 데바달타에게 미래세에 성불할 것이라는 예언(豫記)을 주고 그 이름을 천왕여래(天王如來)라고 하리라 한 다음 대중을 향해, "미래에 만일 선남자, 선여인이 있어 <묘법연화경>의 제바달다품을 듣고 티끌이 맑고 깨끗한 마음으로 믿고 공경하며 의심치 않고 당혹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아귀·축생계에 떨어지지 않고 사방의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것이며 그 태어나는 곳에서 항상 이 가르침을 들을 것이다. 만일 사람이나 천신으로 태어나면 매우 높고 거룩한 즐거움이 가득한 생활을 할 것이며 부처님 앞에 태어날 경우에는 '부모의 몸을 의탁하지 않고' 자연히 연꽃에서 '보살로' 태어날(化生) 것이다."

### 살인등 5역죄 범한 악인 '제바' 석존 "미래세에 성불할 것" 예언

해왔다. 대승의 보살로서 갖추어야 할 여섯 가지의 수행(六度)을 완성하려고 보시의 행을 닦아 재물, 나라, 처자(妻子), 심지어는 자신의 몸과 목숨까지도 아끼지 않았다. 마침내 임금자리를 버리고 복을 쳐서 사방에 포교를 내려 법을 구했던 것이다. 그때에 아사선인(阿私仙) 즉 무비(無比)라는 선인(仙人)이 있어 대승의 <묘법연화경>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그 선인에게 가서 필요한 것을 모두 주었으니 열매를 따고 물을 길기도 하고 달나무를 즐기고 식사를 준비하며 이 몸을 모두 바쳐 섬기기를 1천년을 계속 했으나 그래도 몸과 마음이 피곤한 줄 몰랐다. 마음 속에 묘법을 구하는 마음을 계속 품어 왔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마침내 <법화경>을 얻어 성불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렇게 <법화경>을 구하는 과거세의 수행을 대중에게 설하고 또한 과거세와 현재를 연결시켜서 이렇게 말한다.

"그때의 왕이아말로 지금의 나이며, 내가 섬긴 선인은 누구인가 하면 지금의 데바달타(提婆達多: Devadatta)이다. 그리고 데바달타야말로 나의 좋은 벗

한문 번역에서의 제바달타란 데바달타의 음역이며 제바(提婆)라고 줄여서 부르기도 하고 조달(提達)이라고도 부르고 있다. 전설에 의하면 그는 석존께서 성도한 후에 출가하여 5백인의 비구를 꼬여서 교단을 분열시켜 화합승(和合僧)을 깨뜨렸고, 큰 돌을 던져 부처님의 몸에서 피를 내게 하였으며, 마가다국의 아자타사트무왕에게 술에 취한 코끼리를 풀어놓게 하여 부처님을 밟아 죽이도록 하였고, 주먹으로 화색(摩訶比丘尼)을 때려죽이는 등 악역무도한 사람으로 전해지고 있다. 데바달타는 이렇게 5역죄를 범한 악인이며 이러한 악인이 부처님으로부터 성불의 예언을 받았다. 대악인조차도 성불할 수 있다. 하물며 선인(善人)이야 말로 무엇 하겠는가. 이 악인 성불은 뒤의 용녀성불(龍女成佛)과 더불어 <법화경>을 수지하고 신앙하는 사람들에게는 커다란 격려가 되는 것이다. 이것은 <법화경>의 사상이 일체 만물만상이 평등하다는 대원칙으로 일관되어 있으므로 누구나 다 성불할 수 있다는 데 그 존재의 의의 있다고 하겠다. ■무수정사 조실

유난히 비가 잦았던 올봄, 대정스님을 뵈러 가던 날, 말갈계 개인 하늘과 햇살이 유난히 반가웠다. 걸음을 재촉해 당도한 휴휴정사 입구에서 불현듯 감동이 났다. 순간, 대정스님께서 그 감동을 해결해 주실 것이라는 확신이 든 것은 왜일까?

"스님-"

반갑게 문이 열리고 어서 오라며 반겨주신다. 그리고는 내 어중잡은 확신을 알기라도 하신 듯 미리 챙겨두었던 음료수를 내어 놓으신다. 감동이 났던차라 반가운 마음에 단숨에 들어왔다 시원하고 달콤했다. "제주도에서 나는 밀감으로 만들었는데 맛이 좋지? 마음 사람들이 사가지고 왔는데 맛이 오렌지 주스보다 오히려 나은 거 같지?"

3년전 퇴원을 대보다스님의 얼굴이 더욱 맑고 젊어지신 듯하다. "스님, 3년 전보다 오히려 젊어지셨습니다." 했더니 "사람들이 모두 그래. 얼마전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진료카드를 보면서 내 이름을 불러, 그래서 '예'하고 대답을 했지. 그런데 또 부르는거야, 그래서 또 '예'했지. 그런데 그 의사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이름을 또 부르는거야, 그래서 나라고 했더니 카드에 적힌 나이보다 너무 젊어보여 아닌 줄 알았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2개월 전에 3년만에 감기가 들었어. 감기가 잘 안드는 데다 들어도 입주입이면 관찮아지는데 이번에는 오래가서 고생을 했어. 감기 기운은 없어졌는데도 계속 콧물이 나오고 차도가 없더니 한 보름전에 저절로 완전히 끝났어. 그러나 몸은 물과 불 바람 흙 4대원소로 구성되어 있는 물체에 불과하다는 걸 분명히 알아야 돼. 마음따라 움직이는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지. 그러니 그림자를 움직이는 마음을 깨쳐야 돼. 마음이란 것은 처음이 없으니 끝이 없고 또 본래 태어난 일이 없으니 죽음이 없고 또 동과 서가 없으니 공간이 없고, 또 과거 현재가 없으니 시간이 없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것이지. 그러니 또 없는가 하면 없는 것이 아니고 분명하나 알 수 없고 집들래야 집을 수 없어. 이와 같이 불기사의 마음을 사림마다 똑같이 갖고 있던 말야. 형상은 각각각색으로 되어 있으나 우리 마음에는 차별이 없어. 그러니 마음을 깨치고 못깨치고의 차이가 부처와 중생의 차이지, 마음에는 나와 나, 좋고 나쁨의 차별이 없는 거야." 무슨 말씀을 드려도 항상 결론은 수행으로 귀결되는 답변이 되풀이와 마음을 울린다. 오랜 세월을 두고 스님을 알고 자라는 이들 대부분이 스님의 건강법이나 젊음을 유지하는 비결이 뭐냐고 묻곤 한다. 스님은 "비법은 없다"며 "만 생각 말고 오로지 입념으로 정진하며 앉아 있으니 저절로 그리 되리라"고 하신다. 스님께는 일상이 되어버린 '입념'이 세인들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비법임을 스님은 알고 계실까?

"부처님 오신날이라고 절마다 등을 단다. 봉축 행사를 한다-온통 분주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 함뜻을 바르게 있는 것입니까?" 행사로만 그치는 초파일이지 아니야? 잦아 잦아 잦아는 바람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물론 처음부터 100%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실천하겠다는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오직 도를 위해서야. 이 세상 모든 것은 가만 있지를 않고 지꾸 변하니깐 허무하단

것입니까?" 행사로만 그치는 초파일이지 아니야? 잦아 잦아 잦아는 바람으로 스님의 가르침을 구했다.

"부처님이 오신 뜻을 바르게 알고 실천하는 것이 가장 중요해. 물론 처음부터 100% 그렇게 실천하지는 못하더라도 가능한 실천하겠다는 마음 가짐이 가장 중요하단 말이지.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온 것은 오직 도를 위해서야. 이 세상 모든 것은 가만 있지를 않고 지꾸 변하니깐 허무하단



## 대정스님 (범어사 선덕)

# "부처님 이세상 오신뜻 바르게 알고 실천해야"



◇이름은 좋고 나쁨이 없으며, 평상심이 곧 도라고 강조하는 대정스님.

범어사를 품고 있는 금정산에는 금정팔경(金井八景) 즉, 금정산의 8가지 절경이 있다. 어산고 주변의 울창한 노송의 아름다운 풍경, 계명암에서 바라보는 가을달의 아름다운 풍경, 청련암 주위에 울창한 대숲에 내리는 빗소리를 밤에 듣는 운치 등 그 절경은 단순한 경치가 아니라 소리와 시간, 공간 등 모든 것이 함께 어우러져야 완성되는 것들이다. 물론 이 절경의 완성은 외부의 조건들에 계합되는 사람의 마음에서 비롯됨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는 늦은 봄, 맑은 햇살 내리는 오후에 휴휴정사에서 대정스님의 법을 듣는 것이 또 하나의 절경으로 보태져도 손색이 없는 깨달음이다.

### 몸은 마음따라 움직이는 그림자

말이야. 그런데 오로지 허무하지 않은 게 하나 있으니 그게 바로 도야. 부처님께서 오실 때 최초로 하신 말씀 '천상천하유아독존'이라는 말이 바로 도를 일컬어 한 말이거든. 도는 보통 대(大)자를 붙여 대도(大道)라고 하잖아. 그러나 그것은 크다는 뜻의 대도가 아니라 비교할 상대가 없다는 뜻이야. 비교할 수 없는 가르침. 그것 이 바로 도야. 또한 부처님 하신 말씀이 "만 생각 말고 오로지 입념으로 정진하며 앉아 있으니 저절로 그리 되리라"고 하신다. 스님께는 일상이 되어버린 '입념'이 세인들로서는 감히 흉내조차 내기 어려운 비법임을 스님은 알고 계실까?

"부처님 오신날이라고 절마다 등을 단다. 봉축 행사를 한다-온통 분주한데, 어떻게 하는 것이 부처님 오신 함뜻을 바르게 있는

도를 멀다고 느끼는 것은 도가 우리를 멀리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도를 멀리했기 때문이야. 평상심, 즉 '호흡하고 있고 듣고 서는 것이 도'라 했거든. 실제 도리는 것 자체는 법계에 충만해 있으며, 더함도 모자람도 없이 항상 그대로야.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쳐 증득하면 영원불멸, 다시는 변함 없는 이치를 알게 돼. 오교는 중에 도가 있지만 그것을 알면 부처인 것이고 모르면 중생인 것이지. 알고 모르고를 따라서 부처와 중생의 차이가 나오니 알아야 하겠지? 끊임없이 변해가는 것속에서 항상 변함없는 도란 우리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야." 스님은 우리 불자들이 부처님께 서 삶을 통해 보여주셨던 철저한 수행을 배워 익혀야 한다고 강조하셨다.

마음이란 것은 처음이 없으니 끝이 없고 태어난 일 없으니 죽음이 없고 통과 서가 없으니 공간이 없고 과거 현재가 없으니 시간이 없어 시·공을 초월한 것이지...

"부처님께서 세속을 떠난 이유가 뭔가 깊게 생각해봐. 허무한 세상 일을 인식하고 보니 허무한 인연에 매여 살다보면 허무한 결과밖에 나올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리신 거야. 그래서 진실하고 허무하지 않은 것을 이루기 위해 출가를 하신 것이지. 참된 진리,

## 깨달음으로 가는 외길 그곳엔 부처도 갈 수 없다

아무런 공력도 들이지 않고, 죽비로 내려치듯이! - 화엄(華嚴), 양자역학, 그리고 엑스터시 -

물리학 원리와 화엄경, 절창 禪詩와 선문답을 아울러 깨닫지 못한 누구라도 절대 경지를 엿보게 한다.



- \* 모든 수에 0을 곱하면 왜 0이 되는가?
- \* 가로 세로 높이는 없는데 '위치'만 있다니?
- \* 300,000km/sec의 절대속도는 정지 상태와 다르지 않다
- \* 이 우주에는 '지금'도, '먼저'도, '나중'도 없다
- \*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깨달음'을 얻지 못한다
- \* 항상 반쪽이면서 동시에 늘 꼭 차 있다
- \* 불보살을 공경하지 않아야 하는 까닭

대원 저음 | 값 15,000원



### 온 세상은 한 송이 꽃

전세계 4대 생불 중 한 사람으로 추앙받는 승산 스님의 365 공안집.

하버드·에일대를 졸업한 서양 엘리트들을 스님의 길로까지 이끌었던 바로 그 책!

무심 편집 | 값 12,000원



#### 현암사의 알기 쉬운 불경 시리즈

- 반야·유마경: 대승의 깊은 뜻에 대한 유마와 문수보살 간의 문답을 현대적 관점에서 해석한 경전. 이시카 미즈마루 저음 | 값 9,800원
- 아함경: 풍부한 예화로 부처가 직접 행한 설법, 불교의 뿌리 경전. 미스키 후미오 저음 | 값 9,800원
- 화엄경: 대승경전의 웅대한 세계관과 석존의 깨달음이 집약된 안내서. 다마키 고시모 저음 | 값 9,800원
- 미란타왕문경: 그리스 왕 미란타와 나가세나 존자 사이의 크나큰 대화! 불교 철학과 헬레니즘 사상을 대비시킨 독특한 경전. 이시카미 전오 저음 | 값 9,800원

- 열반경: 석가의 죽음을 전후한 경과와, 죽음 넘어 영원한 세계로의 길을 밝힌 경전. 다무라 요시로 저음 | 값 9,800원
- 재미있는 불교동화: 나한 이야기: 부처님의 열여섯 제자가 제각각 훌륭하게 되기까지의 우여곡절 이야기. 선용길 / 김태호 그림 | 값 6,000원
- 어린이 팔만대장경 1,2,3: 팔만대장경에 담겨 있는 수많은 동화, 신화, 우화 이야기! 선현택 글 / 문조현·문명미 그림 | 각권 값 6,000원
- 내일 오실 부처님: 전경도 도독도 없이 사람이 8만4천살까지 살 수 있는 아득한 미래에 오실 미래 부처님 이야기. 선용 저음 | 값 6,000원